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인생 2회 차는 없다

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깃들거나 환생 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 많다. '이생망' 정서는 어떻게 도 운명을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삶의 '리셋'(reset)을 열망하게 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등과 관련된 신조어로는 이생망 외에 '노오력'(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하라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신조어),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사회)이나 흡수저금수저와 같은 말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의 생이 싫어 도피하고 싶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환생은 없다. 지금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생망의 반대어가 되는 말은 '갓생'이다. 갓(God·신)과 인생(人生)을 합한 이 말은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갓생 살기'는 특정한 목표를 정한 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과연 어떤 게 진정한 갓생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갓생은 누가 보기에든 완벽한 금수저 인생이 아니고 결국엔 내가 갓생이라면 그게 갓생이지 않을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별 거 아닌 것 같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더라도 다음 생을 기다리던 나는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른하나, 요즘 시대에 역행하여 스물여섯 쫓따운(?) 나이에 결혼해 벌써 다섯 살 아이의 엄마이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저는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차...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던 경단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일상의 소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다짐하고 실천하게 됐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운동이나 규칙적 자기 계발 활동 등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앱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다.

'이생망'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를 택한 경우를 소개하려 한다. 이생망을 외치면서도 진짜 망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다는 남자 대학생은 제대로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만들어 서평을 쓰면서 삶을 바꿔 나갔다고 한다. 시작은 친구가 권해준 일본 작가의 추리 소설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쉬지 않고 2시간 만에 독파한 뒤부터 독서가 취미가 됐다. 특히 책을 읽게 된 경로, 책을 읽은 감상 등을 꼬박꼬박 독서 노트에 쓰다 보니 책이 책을 부르는 생활을 하게 됐고 삶에 재미가 붙었다고 한다. 그가 원하는 독서 방법은 가볍고 편하게 재미있는 책부터 읽으라는 것이다. 성공 지침서, 자기계발서 같은 책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

이제 다시 새해 목표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다.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사람마다 목표와 지향점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인생 2회 차는 없다는 점이다. "그때 거기에 땅을 사뒀더라면" 하는 식의 후회나 뒤늦은 깨달음은 의미가 없다. 환생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나 '이생망'의 좌절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말을 새해 벽두에 젊은이들에게 해 주고 싶다. 특히 독서를 권하고 싶다.

社說

지방 소멸 가속화...균형 발전 특단 대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새 해에도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사람과 자본을 무차별로 빨아들이고 있는 탓이다.

전남 지역 시군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산업 연구원이 'K-지방 소멸 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전국 소멸 위기 지역 59곳 가운데 전남에서는 13개 시군이 포함됐다. 전체 22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다. 광주·전남 지역 빈집이 2021년 말 기준 2만 1362호로, 전국의 32.8%에 달하는 것도 공동화(空洞化)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일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는 이유는 간명하다. 수십 년간 국가 재정의 불균형 투입으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것을 수도권에 집중시킨 결과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나머지 88.2%의 인구와 일자리, 소득을 삼키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미래를 이끌 청년들은 질 높은 대학 교육,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전남에서만 25만 8182명의 20-34세 청년들이 빠져나갔다.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대 활성화, 문화시설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통합한 지원 수단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올해가 국가 균형 발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화재 취약 방음터널 안전 기준 강화해야

경기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방음터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으로 시내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다섯 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해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에서 관리 중인 일곱 곳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 등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는 세 곳 등 총 열 곳이다. 연기 제거 시설·송수관 등 소화 활동 설비와 유도등·비상 주차대 등 피난 대피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터널의 균열, 구조물의 안전성 등도 살필 계획이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가 단순 실태 파악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선 과천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

인으로 지목된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자재 사용 여부, 방재 시설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터널 내부 제연 설비를 보강하고 방음터널 시설을 불연 소재로 전면 교체하는 인프라 확충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사고로 드러난 법·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방음터널을 소방방사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화재뿐 아니라 태풍·폭설·지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음터널에서 작은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인명 피해를 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각종 사고에 대비해 종합적인 매뉴얼 제작 등 안전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 이에 대형 참사 후 대책을 마련하는 후진국형 재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정부와 당국은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고



이성현
충남대 철학과 2학년

섬 관광 활성화 '과잉'은 경계해야

에서 고요함과 한적함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몇 해 뒤면 비금도와 압태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생길 예정이라고 한다. 비금도는 이미 지난 1996년에 이우 섬 도초도와 연결되었지만 이번 연도 사업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비금도와 연결하려는 압태도는 이미 천사대교를 통해 압태도와 연결되었고 압태도는 다시 압해대교를 통해 목표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즉 몇 해 뒤면 목표에서 차를 타고 단번에 비금도를 갈 수 있게 되고, 비금도는 물로 변하는 섬이다.

섬이 물로 변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 섬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것이고 여행객들 역시 섬을 편하게 갈 수 있으니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다리가 놓이는 것이 섬사람들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다리가 놓이면 섬은 이제 육지가 되지만 문제는 섬이 수많은 인파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섬은 기본적으로 고립된 땅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지난해 5월 6일 한 일간지는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원산도는 물이 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물려오는 관광객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쓰레기와 절도 피해, 차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금도와 압태도 간 연도교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섬 주민에게 있어 연륙·연도교의 건설은 섬의 위급한 환자를 물로 옮기는 일과도 관련된, 다

시 말해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외지 사람들 내가 함부로 섬 고유의 정취가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연륙된 섬 대부분이 몰려드는 외지인들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섬 주민들 역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나는 연륙·연도교의 경우 다리가 건설되기 이전 차도선이 다니던 수준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다리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등록된 섬 주민들의 차량은 제한 없이 드나들게 하되, 외지 차량들은 하루에 일정 대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섬 주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신안군은 비금도 외에도 장산도와 신의도(상하태도)에 연도교를 건설하고 먼 바다에 있는 흑산도에는 소형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신안군에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겠지만 때로는 일련의 사업들이 '과잉 관광'(overtourism)의 심각성이 간과된 채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비단 신안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부디 지자체에서 섬을 개발하는 토목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이 섬을 찾는 이와 섬에 거주하는 주민 양쪽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히 고려한 다음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폭설 다정(多情)

월이면 제한 급수를 한다 하니 급하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니 겨울비가 절실하다.

일기예보를 예민하게 관찰하여도 비는 기대할 수 없고 눈이라도 많이 내려 제한 급수까지는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반가운 눈이 왔다. 그것도 폭설이란다. 광주·전남에만 유독 많이 내렸다. 폭설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 우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눈 내리는 밖을 보면서 '조그만 산길에 흰 눈이 곱게 쌓이면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를 정겹게 부르는 조수미의 음성을 따라 눈을 감으니 내 상념은 깊어만 갔다. 상상은 내 마음 어디로 달려가는 지 알 수 없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요즘 아내는 이런 나를 보고 배짱이라고 놀려 먹는다. 참 이상하다. 요즘은 나를 바보라 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아니 내지 못한다. 사실이니까. 배짱이라 놀려 먹어도 별로 화가 나지 않는다. 이 건 내가 나이를 먹어서일까 수양이 깊어진 덕분일까.

분분히 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아주 짧은 시간의 생각들은 여러

장면을 연출한다. 어디서 이런 생각들이 눈송이 속에 들어 있었을까. 어릴 적 뛰놀던 고향집으로 데려다 준 눈송이는 게으른 배짱이에게 북을 듣게 한다.

고적(高適)의 '제야작'(除夜作)이라는 한시 구절을 회호해 보았다. "고향금야사일년(故鄉今夜思一千) 상빈명조유일년(霜鬢明朝又一) "(고향에서는 오늘 밤 멀리 떠난 나를 생각하고, 백발은 내일 아침이면 또 일년을 보내는구나)

고향에서 나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부질없는 내 백발은 또 이렇게 일 년을 보낸다. 화선지 위에 여러 생각들이 날아다닌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고 고향집에는 낯선 젊은이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도 고향집은 늘 꿈속에서 나를 반긴다.

왕유(王維)의 한시 한 구절도 떠오른다. 고향집에 대한 상념이다. "내일기장전(來日綺窗前) 한매저화미(寒梅著花未)"(오실 때 비단 창문 앞에 한매 몇 송이 피었던가요)

고향집 앞 정겨운 매화를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어진다. 폭설이지만 기다리던 눈이다. 휘날리는 눈송이 속에 배짱이는 게으름 더하랴 달려 간다. 이제 저수지에 물도 더해지고 나의 작은 배짱은 크게 두둑해져 '배짱'이로 변한다.



곽성구
전 광주일보 교사

얼마 전 오랜만에 눈이 많이 쌓였다. 아직 강아지인 나도 손주들도 신이 났다.

해마다 홍수로 한바탕 물난리를 겪어야 여름이 지나 가곤 했다. 한데 올해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여름이 참 이쁘게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저수지에 넘칠 듯 가득하여 물은 필요한 곳에 보내 주고 우리의 생활용수로 활용되는 모양이다. 비가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 광주·전남 지역 상수원들이 바닥을 드러내 제한 급수를 해야 할 상황까지 왔으니 기후재라도 지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긴박감까지 들었다.

겨울비가 흡족히 내려 해갈을 바라기도 하지만 겨울 비라는 것이 어디 쉽게 내리던가? 우리는 급하게 비가 필요하지만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3

無等鼓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지만 호남 정치가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이성복 시인의 시구처럼 호남 정치의 무기력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호남 정치의 과제
와 서부 간의 정치적 경계선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과감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의 근육을 키우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해는 민주 진영의 심장 역할을 했던 호남 민심의 역동성마저 감아먹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전북의 권리당
원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정치적 무력감이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고 이는 호남 민국의 역동성 약화로 이어지는 정치적 '빈곤의 악순환' 현상을 빚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소통과 결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결집을 통해 목소리를 키우고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각자 자신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은 물론 전남에서도 동부
/임동욱 선임기자 겸이사